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1차	일자	2021.07.26. 18:30	장소	온라인
----	-----	----	-------------------	----	-----

참고자료: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장 모집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	12

## <개회>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8월 초에 임시 간학대회 계획중에 있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공약이행률 카드뉴스 발행 완료.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이번 주 중에 학과별로 인원 모집해서 2학기 축제팀 모집. 1개 콘텐츠 경경대와 동시 진행
동아리연합회	서울시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2주 동방폐쇄 연장 결정.

## 2 보고안건

###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분기 간담회 결과보고 완료
(교육자치) 2학기 수강신청 관련 정보성 카드뉴스 발행 예정
(연대사업) 외부 제휴사업 진행 중
(연대사업) 중앙도서관 응급의약품 사업 비품 보충 완료
(전략정책) 1학기 정책 이행률 보고 완료
(홍보소통) 푸양 여름 콘텐츠 준비중

산하위원회
(인권복지) 위원 1명 리크루팅 진행 중
(인권복지) 1학기 인권문화주간 참가자 대상 상품 발송 예정
(졸업준비) 8월 학위수여식 미진행 게시물 게시 완료
(졸업준비) 레인보우시스템 활용 관련 카드뉴스 제작 중

### 3 의결안건

#### 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권한대행 선출

부총학생회장을 의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8월 중)

총: 관련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칙 상 제 5장 32조 6항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라는 회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의결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유는 총학생회장인 제가 8/2~26 ROTC 하계 훈련을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양해의 말씀 드리며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 8/2~26일까지 되도록 연락은 부총학생회장님께 직접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평일에는 저녁에, 주말에는 오후에 연락이 되니 그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전달 해주시기 바란다. 핸드폰 사용 시간은 제가 입소를 한 뒤에 알 수 있으므로 가용 시간을 파악한 뒤에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 2. 2020-1학기 전학대회 20번 안건 처리에 관한 의결

2021-1학기 전학대회 20번 안건의 효력

2021-1학기 전학대회 결과의 효력

총: 20번 안건 처리에 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저번에 사과대 회장님께서 차주 중운위 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자라고 하셔서 금차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겠다.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의견 없고 전학대회 속기록이랑 자료집 모두 확인하고 별다른 이견 없는 상태로 회의 참석했다. 의결 진행하셔도 좋다.

총: 그럼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은 '2021-1학기 전학대회의 효력을 유지한다.' 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전체 효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0번 안건에 대한 효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효력에 대한 표결을 진행 하는 건지?

총: 네 전체이다.

부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 드린 대로 전체 효력이고 이미 20번 안건은 유효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디오 끊김) 그것을 이유로 전학대회를 폐기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과문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전학대회를 다시 진행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의결이다.

총: 답변이 되었는지 인문대 회장님?

인문.정: 네

총: 의결명 채팅창에 올려드렸고 찬성하시는 대표자분은 찬성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은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단위는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찬성 11단위 반대 0단위 기권 1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이로써 2021-1학기 전학대회 효력은 유지된다. 다음으로 단위요구안 수합이다.

## 4 논의안건

### 1. 중감위원장 지원자 면접

경영학부 21 이창현 지원자

공공인재학부 19 김재석 지원자

공공인재학부 19 김다원 지원자

기계공학부 16 허준구 지원자 (이전 지원 경험 있음)

총: 논의를 할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 면접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네 의결명은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기권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의결명은 '2대 중앙감사위원장으로 000학우를 임명한다.' 으로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누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된다. 저희가 다 취합을 하겠다.

총: 중간에 들어오신 단위가 간호대랑 동아리연합회인지?

동연.부: 네 맞다.

총: 총 12단위이다. 1번 학우분에는 0단위가 2번 학우분에는 0단위가 3번 학우님은 7단위가 4번 학우님은 4단위가 기권은 1단위가 의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3번 학우분께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셨기 때문에 2대 중앙감사위원장으로 3번 김다원 학우님을 임명하겠다.

### 2. 단위요구안 수합

내용 공유

중앙단위 요구사항 수렴

총: 제가 회의 전에 공지방을 통해서 한글 취합본을 올려드렸는데 단과대별로 누락된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엑셀 파일은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피드백 받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없다.

경경.정: 경경대 없다.

사범.부: 사범대 없다.

사과.정: 사과대 학과/부 단위요구안 중에 별첨 파일을 따로 주신 학과/부가 있는데 그거 회의 끝나고 바로 보내드려도 괜찮은지? 별첨 파일이 첨부 안 돼서...

총: 네 어느 부분인지까지 표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네 알겠다. 회의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겠다.

간호.정: 간호대 없다.

약학.정: 약학대학 정정사항이 좀 있어서 회의 끝나고 한글파일 추가로 보내드리겠다.

총: 추가로 보내주신다는 것이 추가된 내용만 주신다는건지 아니면 추가된 내용의 파일을 주신다는건지?

약학.정: 추가된 내용의 파일을 보내드리겠다.

총: 네 알겠다.

자연.비: 자연대 없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없다.

예술.정: 예술대 없다.

총: 정정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화방을 통해서 확인 받도록 하고 중앙단위 요구사항이 있다면 으로 수렴하도록 하겠다. 중앙단위 요구사항으로 상정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실 중앙단위 요구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2021-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내용도 저희 총학생회 단위요구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앙단위 차원에서의 요구사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할지?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저희 단위요구안 보시면 모바일 기기에서 온라인 강의 배속시켜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공대가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혹시 중앙단위 차원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쭙 보고 싶다. 다른 대표자 분들께.

총: 근데 저는 사실 단과대 차원의 단위요구안이나 중앙단위요구안이나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중앙단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올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공.정: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총: 네 감사하다.

부총: 강의물 관련한 내용은 해당하는 단과대로 보내는 게 처리가 더 빠를 수 있다.

### 3. 2021-1학기 등록금환불 관련 논의

설문조사 시행 및 본부와의 협의 개진에 대한 논의

총 : 2021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논의이다. 지난 임시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불참하신 단위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정기 회의에 한 번 더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설문조사 종합적 내용과 양상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우선 7월 22일에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 설문조사 구성과 관련해서 게시글을 하나 만들었다. 한 단위도 작성해주시지 않아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우선 지난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만 물을 것이 아니라, 2021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조사를 하자. 그리고 중운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등록금 환불의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답변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자 라는 중운위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다른 대표자분들 추가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 해주시고, 1학기 학사 운영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 혹시 단운위 내나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덜 되어서 의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지?

예술.정 : 예술대 아직 단과대 내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의견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 : 혹시, 지금 대표자분들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질지?

인문.정 : 인문대 먼저 말씀 드리면, 사실 인문대학은 지난 번 회의 때 설문조사 항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 일단 인문대학은 설문조사 자체를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은 지난번과 동일하고, 지난 번 회의에서 설문조사 항목에 구성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따로 게시판 작성하지 않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등록금 환불 논의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 주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 안건지에도 기재를 했는데,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 먼저 수합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임시 회의 때 참가자하지 않은 대표자분들도 계시고 의견을 내주신 대표자분들의 의견도 다른 대표자분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임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경경.정 : 경경대도 인문대와 마찬가지로 지난 번 회의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난 회의에서 말씀 드린 부분 다시 언급하자면 우선, 출입 빈도 확인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된다. 출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닌 빈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 냈었다. 또한 지난 번 사과대 회장님께서 자치 공간 이용 불가에 따른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설문조사 내용 자체에 자치공간 이용 불가에 따른 피해 사례를 주관식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추가적으로 비대면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저희가 객관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비대면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나열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느낀 불편사항이 있는지 주관식으로 받는 것이 불편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피해사례 모두 주관식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말씀드렸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일단 지난 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설문조사 항목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구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등록금 환불 필요성이고 두 번째로는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도수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치 공간 같은 경우도 포함되면 좋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학생자치 내에서 방역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폐쇄를 결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래서 자치 공간 보다는 단과대 열람실이라든지, 단과대 팀플룸 이렇게 변환해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학번 이상한테는 대면과 비대면 강의의 절대적인 차이를 여쭙보면 좋을 것 같고 20학번, 21학번 분들에게는 비대면 강의에서 발생하는 불편, 불만족감을 여쭙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번째는 전반적인 비대면 학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여쭙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의 학사 운영 과정에서 학교 본부의 학사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크나큰 학생들의 불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등록금 대비 전반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여쭙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2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학우분들께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총: 자치공간을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저도 인문대 회장님과 동일한 생각이고 사실 지난 임시 회의에서도 의문이 들었다. 자치 공간 폐쇄는 학생회 차원에서 폐쇄한 공간도 있기 때문에 효력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다. 또 의문을 가지는 것은 건물 별 출입 빈도를 가지고 어떻게 등록금 환불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인문.정: 일단 등록금에 어쨌든 시설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학우분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설문조사에서 구체화 할 수 있을지 단위 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학우분들이 건물 이용에 대한 주, 월 단위 건물 이용빈도를 여쭙보는 것은 어떨지. 대면 수업 때는 무조건 이용하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이러한 빈도수를 여쭙보면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었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항목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어떠한 결론을 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항목들을 구체화시켜도 20, 21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자체가 의문이다. 더불어 이전 회의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20, 21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내에서 뜨겁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논점이라는 점에서 과연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들과 추가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 설문조사가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 노력해서 구체화 한다고 해도 특정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자치 공간 이용 같은 지표들이 학우분들마다 너무나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지표라는 점에서 해당 항목이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경경.정: 경경대는 설문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설문조사가 등록금 환불에 대한 근거를 찾는 목적도 있지만 학우분들께서 이번 학년도의 등록금 환불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든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출입 빈도와 같은 것은 학교 측에서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 시설 유지를 위해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장할 때는 학우분들이 대면에 비해 비대면 시에 시설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치 공간 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 나눈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보충하자면 310관 내부에는 소파라던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비대면 학사가 되면서 해당 부분들을 전면 폐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피해를 조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덧붙이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근거들은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 했을 때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시 활용한 지표이지, 환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다.

부총: 저는 시설 미이용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화한다고 해서 근거로서 힘이 실릴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든다. 왜냐하면 비대면 시기에는 당연히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고, 그것이 10명이 들어갔다 혹은 100명이 들어갔다 해서 근거가 크게 달라질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효용이 있는 설문 항목인지는 모르겠다.

총: 그리고 310관을 예시로 들어줬는데 310관 외 학습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 그것이 학생들이 등록금 내에서 교육을 받는데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경.정: 저희가 출입 빈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교 본부에서 대면 시기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시설 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비교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이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대표자 분들이 많다면 주장에서 빠도 될 것 같다. 다만 팀플룸 강의실 대여 경우에는 이 대여가 불가능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학우분들도 계실테니, 해당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시 회의 계셨던 대표자분들께 여쭙보고 싶은 것이, 2021-1학기 등록금 환불이 안건이 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기억나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기억이 안나는 것 같아서 여쭙본다.

총: 혹시 누구한테 질문하신 건지?

간호.정: 당시 대면 회의인 것은 기억나는데, 그 회의에 계셨던 모든 대표자분들께 여쭙보는 것이다.

총: 혹시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건지?

간호.정: 당시 대면 회의인 건 기억이 나는데 그 회의 때 계셨던 모든 대표자분들께 좀 여쭙보고 싶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2학기 등록금 환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나온 안건이라면 이때까지 나왔던 설문조사가 가지게 될 방향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확한 안건 설정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여쭙보게 되었다.

부총: 안건 상정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단위에서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단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안건 상정의 배경이 누가 안건 상정자인지 여쭙보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간호.정: 논의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점이기에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별도의 단위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단이 상정하신 것이라면 그 배경이 분명히 있어야 안건 상정이 되는 것이므로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배경에 대해 여쭙보는 것이다.

총: 우선 등록금 환불을 하자고 해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아니며 환불을 요구할지, 말지에 대해서 중운위 분들의 입장을 여쭙본 기억이 있고 환불 진행 여부 그리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중운위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도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근거로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다.

경경.정: 제가 당시 대면 회의 때 기억하기로는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그 부분을 중운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 아닌 학우분들의 생각이 어떨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중운위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설문조사를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나왔다. 따라서 설문조사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간호.정: 답변 감사하다.

총: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선 등록금 환불 요구 양상과 그에 따른 중운위 차원에서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운위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 결과 학교 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중운위 차원에서의 입장을 정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었다. 따라서 일부 대표자분들께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자고 비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정도까지가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다.

통공.정: 설문조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넣고 싶은 항목이 하나 있음. 사실 등록금이 시설이용료로 여기저기 쓰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강의의 질이다. 그러나 비대면이 이어지면서 처음엔 등록금 환불에 적극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강의가 좋다는 여론이 더 많이 보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환불을 해야 하는지, 비대면이 더 좋다고 하는데 같은 회의감이 들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대면이 좋다 혹은 비대면이 좋다는 것을 혹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을 넣은 후에 거기서 만약 50% 이상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는 등록금 환불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수업의 질과 관련된 항목을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과.정: 등록금 환불이 현재 학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학사에 따른 시설 이용 불가 문제, 강의의 질 저하 문제, 실험 실습 불가의 문제 등으로 등록금 납부액 대비하여 비대면 학사에서 효용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생각한다. 학우분들의 요구가 있는지 아닌지는 자체를 설문조사 내부에 21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을 삽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과대가 생각했을 때는 등록금 환불의 메인 문항을 21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로 가져가고 두 번째 문항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주관식 문항으로 가져간 다음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한 문항으로 첫 번째 문항 시설 이용, 두 번째 문항 학사 운영 만족도, 세 번째 문항 강의 만족도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지?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메인 문항에서 필요 없다고 응답하신 학우분들이 많다면 저희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학우분들의 응답이 많다면 환불에 대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환불을 가져가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까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이다.

간호.정: 공대, 사과대의 의견과 동일하다. 시설과 강의의 질 학사운영 방식의 면에서 항목 나눠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

부총: 의견 감사하다. 중간에 알려드릴 것은 말을 하실 때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는 서기분의 요청이 있었다.

사과.정: 죄송하다. 천천히 하겠다.

경경.정: 회의 진행 관련해서 의견 내고 싶은 게 있다. 지금 해당 내용들은 이전 회의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왔던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논의 안건이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보니까 반복적인 내용을 저희는 빼고 추가되는 사항들만 이야기를 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안건을 진행할 때는 정리된 파일이든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진행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 첫 번째 항목도 지난번에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설문조사 내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던 사항들이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다.

사과.정: 경경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지난번에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인문이랑 경경대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이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종강을 한지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이므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빨리 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논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총: 제가 저번 주 임시회의 때 당시 임시회의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게시글에 남겨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다. 하지만 한 단위도 달아주시지 않았다. 물론 저희가 임시회의라고 올려두지 않은 잘못도 있겠지만 당시 임시회의 때 참가하지 않은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 임시회의 논의 양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게시는 단위도 많이 게시고, 그 과정에서 간호대학 학생회장님께서 설문조사 시행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회의 양상이 저번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한번 더 게시글을 올려 드릴테니 지난 임시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설문조사 시행에 관련하여 의견을 내셨던 것들을 다 달아주시길 바란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 설문조사 초안을 작성하고 중운위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임시회의에 대한 댓글을 남기지 못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말했던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해당 부분은 임시 회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의가 시작된 시기부터 계속 지속되어왔던 의문점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를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 알겠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중운위 차원에서 입장을 한 번 더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다.

#### 4. 새내기새로배움터 예산 활용 논의

일전 공지한 주무부서 문의결과 참조

총: 새내기새로배움터 예산 활용 논의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터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위가 동일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각 단위 별로 생각하시는 예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는 단운위 내 논의를 마쳤다. 저희는 행사 진행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귀결이 되었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1인당의 6만원의 내용을 전부 다 활용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저희는 행사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 행사 진행이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경.정: 저희는 새내기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혹시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전체 단위가 통일해야 하는 부분인지?

총: 자세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통일될 필요가 없다. 큰 틀의 행사만 통일되면 된다.



경경.정: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인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고 그 사이트를 바탕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개인별이 아닌 팀별로 진행이 되어서 학우분들이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총: 죄송하다. 행사 큰 틀을 말씀드렸는데 단가를 먼저 맞추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혹시 단가를 먼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6만원을 다 사용한다고 하셨고, 경경대가 6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위도 다 6만원을 사용하셔야 한다. 어느 단위는 사용하고 어느 단위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경경.정: 플랫폼 구축비용은 총 1000만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다른 것은 상품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6만원이 아니라 4-5만원 선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만원은 보장되었으면 한다.

총: 어차피 행사 자체를 맞추는 필요는 없으니 제가 투표를 통해서 0원,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투표를 올릴 테니 투표수가 많은 걸로 각 단위 별로 맞추는 것이 어떤지? 제가 보았을 때 서로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 단가가 통일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저는 이 논의 이전에 지난번에 문의 드렸던 통일 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한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지?

총: 단가만 맞추면 된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경경.정: 알겠다.

공대.정: 단가만 맞으면 단대 내에서 어떻게 쓰든 크게 상관이 없는지?

총: 상관이 없다.

공대.정: 그렇다면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표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총: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 진행하도록 하겠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기획안을 이미 작성을 했는데 해당 내용 교지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지팀에서 이 기획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되어야 하고 이 예산은 어디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해당 내용 혹시 예산팀에서 전달받은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새터 예산은 예산팀에서 결정을 하고 교학지원팀과 학생회 간에 논의 후에 기획안을 작성하시고 교학지원팀에서 예산팀에 기획안을 보내시면 된다. 학생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행정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학지원팀에 부탁을 하시면 되겠다.

경경.정: 확인했다.

총: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계시는지?

자연.정: 질문이 있다. 자연대는 현재 유일하게 비대위 체제로 학생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학생회로 돌리거나 학생회비 유보하는 형식 즉, 뒤로 이월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예산팀과 교지팀에 문의해서 그쪽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월의 문제와는 다른 것 같다.

총: 저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우선 예산팀은 보존할 계획은 없다고 하시고 만약 새터 예산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항목으로 전형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예산팀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다.

자연.비: 어쨌든 단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셨으니까 굳이 새터 대체 행사 쪽으로 기획해서 어쨌든 사용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총: 그렇다. 그 대상이 신입생이어야 한다. 100% 신입생일 필요는 없지만 그 행사의 목적 대상이 신입생이어야 한다는 예산팀의 입장이 있었다.

자연.비: 네 알겠다. 감사하다.

부총: 신입생 대상 행사이어야 하고 배정된 예산은 모두 사용하셔야 한다. 남겨서 학생회비로 이관한다던지 이런건 불가하다.

자연.비: 네 알겠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신지?

통공.정: 100% 전액이 모두 다 21학번에게만 사용돼야 하는지?

총: 그건 모른다. 예산팀이 21학번한테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행사의 명목이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터를 갔을 때에도 신입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통공.정: 네 확인했다.

약학.정: 약학대학 질의있다.

총: 네

약학.정: 예산팀의 예산 지원방식이 저희 학생회 측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안을 제출했을 때 그 금액이 교학지원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업체에게 전달이 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총: 예산팀이 교학지원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해주면 학생회는 그 교학지원팀에게 결제요청서를 보내서 교학지원팀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 만약에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학지원팀이 업체에 돈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교학지원팀이 반드시 그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주체여야 한다. 학생회가 현금을 받는다면 그런건 절대 불가능하니 교학지원팀과 논의하시면 된다.

간호.정: 똑같은 질문 자주 다시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전 단위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인지?

총: 일단 예산팀은 모든 단위가 같은 단가로 진행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어느 단위는 하고 어느 단위는 안하고 했을 때 지원 자체를 안해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단가를 맞추라고 한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각 단과대 별로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같은 단가를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것이다.

약학.정: 약학대학인데 그럴거면 단가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6만원으로 최대한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근데 단가가 단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단위마다 다를 수 있는 건 최대한 6만원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단위별로 좀 각자 알아서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사과.정: 사과대도 동의하는 게 굳이 4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부치는 것보다 각 단과대에서 6만원 선에 뭔가 만약에 뭐 키트를 배송 한다면 키트에 뭘 더 넣어서 6만원선으로 맞추는 것이 학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총: 근데 애초에 행사 자체를 기획하지 않으려는 단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6만원을 하자라고 입장을 모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투표를 진행해야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지금까지 새터 관련 되서 논의가 된 단위도 있기 때문에...

경경.정: 경경대 말씀 드리자면 그러면 단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이 금액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진행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게 지금 진행을 하지 않으려는 단위는 아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되든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내용은 단가가 아니라 진행 여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 단위라도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논의를 통해서 통일이 되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총: 애초에 나는 3만원 짜리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한 단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투표를 통해서 확인이 다 되니까 투표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 분명히 6만원을 많이 투표해주시면 6만원이 되겠다.

경경.정: 단가 투표로 그게 된다면 상관없을 것 같다.

통공.정: 그리고 안 하실 단위는 0원에 투표하실 것 같다.

총: 나는 행사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0원에 투표하시는 거고 나는 6만원짜리 행사 기획할 자신이 없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하면 3만원이나 4만원에 투표하시는 거다. 6만원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원래 다른걸 기획했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는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입장이다.

자연.비: 방금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잘 이해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각 단위에서 새터 대체행사 혹은 다른 방안으로 해당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어떤 단위는 3만원을 책정을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단위는 6만원을 고려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각 단위에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사용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빠르게 논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뭔가 저희 단위는 사실 6만원 전체 사용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다른 단위에서 3만원을 생각해서 그 3만원이라는 가격이 다수결로 부쳐지면 저 입장에서도 예산 가격을 줄이고 행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 단위의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명확하게 알고 싶다.

총: 사실 저는 그 3만원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랑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본인들이 기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나 단운위 내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용처를 여쭙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단가 자체를 지금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오늘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또 집행부와 단운위 간에 또 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 사과대 회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면 혹시 기획해둔 게 있는 단위가 이 있는 단위는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다.

간호.정: 간호대 추가 질의가 있다. 그러면 0원에 투표한 단위가 있고 3만원에 투표한 단위가 있고 금액별로 다 다르게 투표한 단위가 있으면 투표 결과가 다수결에 따라 가는지?

총: 결선 투표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다.

부총: 그러면 이걸 먼저 여쭙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입생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단위가 있으시면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이게 결선 투표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각 단위가 다른 단위에게 기획에 대해서 틀을 자꾸 강요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번 회의 때도 간호대가 여쭙봤고 안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유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회의 때도 똑같이 이유와 함께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것

이 당황스러울 뿐이라서 이 회의가 맞는지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는 게?

총: 일단 지금 간호대는 안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 누군가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쨌든 돈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 어쨌든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한 것이다. 어쨌든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총: 저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취지는 이미 공지방을 통해서 이월이나 보존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회의와 의견이 동일하시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었다. 어쨌든 원칙은 동일 단가로 모두가 진행해야 하는걸 전제로 지금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소리였다.

총: 그럼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모수가 생각나지 않는다.

약학.정: 혹시 이게 지원금을 '사용한다'와 '안 한다'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지 지금?

총: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단가를 다 통일해야 되고 만약에 '한다'라고 과반수가 넘었을 때에도 '안 한다'라고 투표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용 하셔야지 '한다'라고 투표했던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약학.정: 하나로 통일되는 상황인 것인지 지금?

총: 무조건 '한다', '안 한다'에 대한 통일도 되어야 되고 할지 만약 '한다'라고 귀결 되었을 때도 단가를 얼마 정도 할지에 대해서도 통일되어야지 새터 예산 자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경경.정: 경경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사용을 한다 안 한다라고 투표가 진행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용한다'는 '사용 안 한다'라는 입장 측에서 이게 행사 기획이 불가능한 단위도 있고 기념품 제공 자체도 불가능한 단위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다수결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있지 않을까 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단위가 나왔을 경우에 단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단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 단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진행을 강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총: 그러면 간호대학 회장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새터 대체행사를 기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해주셨다. 맞는지, 간호대 회장님? 이미 나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예정이라고 일단 밝힌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고려한 논의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경경대 회장님 의견이 맞는지?

경경.정: 네, 우선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강행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하는 입장이다.

간호.정: 이게 거꾸로 봤을 때 안 하겠다는 단위가 많고 하고 싶다는 단위가 적었을 때도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가뿐만이 아니라 할지말지 여부가 전 단위가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가 그렇게 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각 단위가 서로에게 강요를 하는 그런 게 맞는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1학번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각 단위에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경경.정: 경경대 말씀 드리자면 저번에 기념품으로 갈 것인지, 행사로 갈 것인지를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우선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기념품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지금 또 논의되는 방향은 기념품이든 행사든 다 상관이 없고, 단가 통일만 되면 해당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무관하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행사 진행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간호대,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단위들은 기념품적인 부분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인지, 사업 자체만 불가능한 부분인지라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단위라도 불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 단위라도 불가능한 단위가 있다면 해당 내용은 통일해서, 어차피 통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진행하지 않는 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총: 그 우선 간호대 회장님께서 우려해주신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사실 학교 측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단과대는, 나는 어느 단과대 소속 신입생이라서 이걸 혜택을 받고 나는 이 단과대라서 혜택을 안 받고 이런 갈등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가를 통일하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저도 각 단과대 특성에 맞게 그 예산 집행 여부도 결정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새터 예산이라는 것이 필수편성 안이 아니다. 학교도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편성을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이렇게 각 단과대학별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중앙단위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저는 대체안이라고 생각한다.

사과.정: 네, 사과대의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방금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의견으로 내고 있었는데 차라리 각 단위에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르다면 단위별로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중앙운영위원회 모든 단위가 다 통일해서 돗바 공동구매나 기념품 공동구매를 해서 모든 단위에 통일된 상품을 보내는 게 어떤지. 사실 단위별로 그 어쨌든 2학기에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다르고, 또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여력이,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여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아무래도 학교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가 많지 않은데 새내기를 대상으로 6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이대로 날려버리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6만원의 예산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중앙단위 모두가 돗바나 기념품처럼 통일해서 배송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맞추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린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사용에 의사가 없는 단위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 해당 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 하지 않겠다는 단위가 저희 말고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합의점이 논의나 이런 합의를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없이 결선 투표라든가, 우리 단위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가 되어버려서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다. 중앙단위로서 그렇게 통일을 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저희가 계획에도 없었고 시간적으로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부터 계속 회의 때 간호대는 새터 대체행사 진행에 별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렸던 점 말씀드립니다.

총: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중앙단위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그 새터 예산에 대해서 최초 논의를 할 때 중앙단위로 하자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던 거다. 그런 상황에서 각 단위별로 새터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를 희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투표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만약에 중앙단위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의견을 또 하나 내자면 저는 돗바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푸앙 굿즈가 이미 발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품을 또 한 번 더 보내는 것보다 이번에 건국대학교에서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학교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포한 적이 있다. 혹시 다들 아시는지? 그 자기 아바타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학교 도안을 따서 진짜 휴대폰으로 학교 내를 투어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3D로 실현해서, 그게 굉장히. 네, 말씀해달라.

통공.정: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려 했다.

총: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중앙단위로 이 새터 예산이 보존이 된다면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와 함께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내려고 했었다.

인문.정: 혹시 인문대학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총: 우선 중앙단위로 예산을 전용하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시겠는지?

인문.정: 사실 인문대학도 지금 단과대별로 입장이 너무 상이하고 이걸 어떻게 통일 시킬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사과대 회장님과 총학생회장님이 내어 주신 중앙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희는 좋다고 현재는 판단을 했고,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인문대학은 긍정적이지는 않다.

사과.정: 저도 메타버스 어떤 사이트인지 알고, 봤는데 사실 돛바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새내기 대상으로 배정되어 있는 6만원씩의 금액을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총: 돛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는 돛바를 안 하려고 했다 집행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미 각 단과대 내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돛바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 불량률도 굉장히 많았다 지금까지.

경경.정: 경경대는 돛바 반대하고 기념품 자체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굿즈 진행도 다 했고 학우분들이 웬만한 물품을 다 구매한 예정이고 저희는 공동구매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기념품보다는 행사진행을 원한다. 만약에 기념품으로 통일이 된다면 저는 이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돛바라고 진행되는 거라면 각 단과대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중앙단위까지 넘어가야 되나, 중앙단위로 넘어갈거면 차라리 더 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저도 메타버스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저희는 기념품으로 간다면 차라리 단과대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

총: 왜 다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그러실까요? 메타버스 인기 많은데...

인문.정: 총학생회장님, 의견 하나만 드려도 될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통일된 안을 수립하는거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본다. 차라리 지금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 차후 회의에서 이 중앙단위에서 사용할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게 저는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단위별로 단운위 차원에서 중앙단위에서 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사실은 지금 전혀 생각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하고 차후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여쭙 본다.

총: 우선 오늘 회의에서 중앙단위로 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대표자 여러분들도 단운위나 집행부 의견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의견 공유만 하고 투표를 통해서 중앙단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약학.정: 중앙단위로 돈을 받게 되면 받은 돈을 이제 단위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단위별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지? 만약에 저희 약대는 원래 인당 6만원을 쓰고 싶는데 그걸 중앙단위로 루트만 바꿔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지?

총: 그렇게 하면 저희가 중앙단위로 변경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함께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차원에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대에게만 6만원을 달라 라고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약학.정: 약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단위마다 사실 그 돈이 필요한 단위도 있으니까 그 필요한 단위에게 이게 중앙단위로 해서 경유를 할 수 있는지 여쭙보았다.

총: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경경.정: 경경대 질의 있는데, 중앙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방식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거의 주체가 어떻게 되고 진행 방식은 누가 총대를 매서 이것을 누가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파악이 될 것 같다. 지금 총학 측에서 이 전부 다 새내기의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행사를 진행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다.

총: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사실 지금 중앙단위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서 어떻게 이 행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한다.

경경.정: 그래서 저는 의문인 게, 중앙단위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단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의 크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따로 하는 것과 사업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것인지, 들이는 시간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단위에서 감당 가능한 부분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사과.정: 학교 측에서 제시한 게 사실 중앙단위차원에서 11단위가 모두 예산처를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만 통일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경경대처럼 기존에 기획하던 사업이 있으시고 기념품이라든지 돗바 등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단위는, 저희 11단위가 금액만 맞추고 사용하는 사용처는 조금 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경대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에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인문대나 자과대처럼 따로 사업계획이 어려우신 단위는 돗바를 통해서 인당 6만원을 보존하면 어떨지? 정리하자면 11단위 중에서 각자 사업 기획하신 단위가 3단위 있다고 하면, 3단위는 사업 기획에 6만원 사용하시고 나머지 8단위에서는 돗바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새내기에게 배송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신 금액은 다 맞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총: 돗바의 가격도 맞춰야 한다. 돗바도 6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하는 것이 맞는지?

사과.정: 맞습니다. 8단위가 모두 6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6만원 정도의 돗바를 진행한다 하고, 저는 당연히 총회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총에서 올해의 돗바 기획이 없다는 것이, 8단위가 총을 중심으로 돗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오히려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총을 중심으로 8단위가 돗바를 진행한다면 저희는 중운위와 저희 집행부가 포장 작업이라든지 관련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기획하신 단위는 사업 기획하시고 나머지 단위는 돗바로 통일해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상이다.

총: 돗바라고 하는 것이 학교 돗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과대 돗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과.정: 학교 돗바로 통일되어도 괜찮다는 의견이다. 굳이 뒤에 사회과학대학을 명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총학생회에서 하던 돗바랑 중앙대학교가 명시된다든지 등으로 기존에 총학생회에서 하는 돗바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학우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돗바의 경우에는 당연히 퀄리티가 완전히 낮았을 때,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퀄리티가 낮아지면 그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새내기 지원금 6만원을 사용해서 학우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지원하는 돗바의 경우에는 아까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우려하셨던 비난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총: 사실 총의 주도로 돗바 사업을 진행하고 포장이나 기타 제반업무를 각 단과대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각 단과대에서 돗바를 준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총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업체 선정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집행부를 동원을 해서 돗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집행부에서 임기 초반에 논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총 주도로 돗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과.정: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 가용을 6만원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



으로 어떤 소재로 하느냐에 따라서 돕바 가격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6만원이라는 단가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총이 주도로 해주시면 단과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총의 주도로 해주기를 요청드리는 것이다.

통공.정: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잠깐 제 기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성을 중운위 내에서 당연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대표자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어쨌든 양보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근데 그 양보를 얼마나 누가 할 것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일일이 말하거나 투표를 띄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6만원의 지원금을 쓸지 말지 단대별로 생각하신 게 있을테니까 쓸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투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소수의 입장이 나올 테니까 소수의 입장이 양보가 가능한지 단운위 내에서 의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쓴다는 데가 9개, 안 쓴다는 데가 3개가 나왔으면, 그 3개가 소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이제 중앙단위로 넘기냐 마냐 의논을 그때 가서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공대가 생각했던 것은 돕바 배송도 좀 그런 게, 이게 공짜로 배송하는 것인데 20학번의 여론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20학번한테 '너네 돈은 작년에 학교가 먹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게 20,21 대상으로, 둘 다 위주로 사용 계획 중이어서, 중앙단위에서 돕바 배부하자 솔직히 이것도 많이 걱정이 돼서 일단은 사용할지 말지 조사를 먼저 하고 소수인 단위에서 양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논의가 이뤄져야지 지금 여기서 뭘 하나라도 결정하는 것도 좀 성급하고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일단 회의 끝나고 투표를 띄우고 소수 의견이 나온 단위별로 회의를 한 번씩 다음주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이상이다.

총: 정리하자면 일단 이번 주 내에 새터 단가에 대한 단위별 투표를 받고, 만약 소수의 의견이 존재한다면 그 소수의 의견을 토대로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 만약에 양보가 가능하면 많은 대표자분들께서 투표해주신 그 단가로 통일을 하고, 만약에 양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중앙단위로 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거기서 만약에 중앙단위로 전용하자 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중앙단위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지?

통공.정: 덧붙여서 말하자면 투표는 이미 단대별로 어느 정도 의견은 취합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투표가 지금 회의 끝나고 바로 이뤄져야지 소수인 과들은 확인을 하고 본인의 단운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는 오늘 이루어져야 생각하고 투표는 익명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총: 익명투표인지?

통공.정: 네. 왜냐하면 소수의 입장이 나온 단위는 어쨌든 본인이 소수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총: 저는 저희 중운위 대표자분들은 소수에 별로 그렇지는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중앙 대표자분들이신데...

통공.정: 배려심이었는데 저는 상관없다.

총: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원과 0원으로 투표를 할지 아니면 1,2,3,4,5,6으로 하는 게 나올지? 저는 그래도 1,2,3,4,5를 넣는 것이 애초에 기획했던 내용을 토대로 투표를 받는 것이라면 1,2,3,4,5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통공.정: 그렇게 하면 이제 기획을 안 하신,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께서는 0원에 하시겠죠? 그렇게 약속이 된다면 그런 투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총: 왜냐하면 애초에 6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기획을 하신 분은 없을 것이다. 이미 본인들도 어떠한 단가를 생각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그 투표 항목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제 의견이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미 기획을 하셨으리라 믿고 최대한 빠르게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만약 본인이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바탕으로 단운위 내나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누락한 내용이 있을지?

자연.비: 그래서 투표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총: 내일 정오까지 받도록 하겠다.

자연.비: 네 알겠다.

통공.정: 그리고 말씀을 마저 못 드렸는데, 다수가 나온 분들도 어쨌든 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만장일치가 아니면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다수가 나와도 그 단위도 안 될 경우를 이번 주 단운위에서 의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면 다음 주 중운위가 일방적으로 소수가 양보를 하자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 서로 플랜B를 생각을 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경.정: 경경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행사 진행을 원하는 입장으로써 우선 저희는 불가능한 단위가 있으면 행사 진행을 포기할 예정이고, 기념품 발송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굿즈 배송 때 드렸던 것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돋바로, 한 단품으로 해당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면 배송대행 업체를 끼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송이 잘못되었을 경우만 파악을 하신다면 해당 기념품 발송에 기간을 많이 안 뒤도 될 거라고, 집행부의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해당 내용도 고려해주시고 비용 활용을 논의 해보셨으면 좋겠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신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논의하면 임기 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 많이 고려를 해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사실 저희 총학생회에 배정되는 새터 예산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터 예산을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입장이 그렇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믿게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

경경.정: 회의 끝나가는 와중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불가능한 단위가 있다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서 해당 내용도 각 단위에서 고려 해보셨으면 좋겠다.

## 5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한 가지 기타 안건이 있다. 지금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서 하나 올려드릴 것이다.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 내 일상복지국장님께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다. 7/28 18시까지 일상복지국장님께 불법 카메라 관련 실무자 번호를 넘겨주시면 된다. 그 실무자 분들과 논의를 해서 8/4이나 8/6 중에 불법 카메라 탐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1학기 때 진행한 내용과 형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 카메라 탐지 강연이 끝나면 8/9부터 13일까지 불법 카메라 탐지 정기조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해당 기간 때 불법 카메라 탐지 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투표를 해주시면 된다 저번과 동일하게. 제가 회의 끝나고 바로 투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투표에 참가해주시면 제가 일정을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다. 탐지기는 6대이고 한 타임당 한 단과대에만 대여하는 것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남녀 구분하여 했을 때 3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타임 당 한 단과대만 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지금, 사범대도 그렇고 사과대도 그렇고, 지금 서라벌홀이 화장실 공사 중이라 차후에

불법카메라를 대여할 수 있는지?

총: 언제든지 대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서라벌홀을 사용하시는 단과대가 사범대, 인문대, 사과대인지? 그런데 사범대와 사과대는 다른 건물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인문대는 서라벌홀만 사용을 하시는지?

인문.정: 네.

총: 그러면 인문대만 제외하고 다른 대표자분들은 일정에 맞게 투표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1학기 때 스케줄 조정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혹시나 눈치껏 내 앞에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면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혹시 추가안건으로 상정하시고 싶은 게 있는지?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기타 안건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저희 단위 재학 중이신 학우분께서 저희 단과대 운영위원회와 의장인 제게 중앙운영위원회에 지난 총학생회 1분기 간담회 속기록과 관련해서 전달해주시길 요청하신 내용이 있었다. 지난 총학생회 1분기 간담회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녹음파일만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저희 학우분께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셨지만 저희 학우분께서는 녹음파일만 공개될 경우에는 청각장애 학우 분들의 정보접근권한이 보장되지 못하기에 속기록 작성을 요청했고 녹음파일만 게시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미로 녹음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 이에 시정조치를 요청 드리고자 한다. 배리어 프리한 학생자치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총학생회인만큼 지난 1분기 간담회의 속기록을 작성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싶다. 이상이다.

총: 1분기 간담회 속기 작성과 관련해서는 1분기 간담회 때도 학우분들께 공개한 바가 있고, 2분기 간담회 때도 공개한 바가 있다. 우선 1분기 간담회 때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되었고, 왜냐하면 1분기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가 주도해서 실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권한은 오로지 총학생회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분기 간담회 때 속기록이 업로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안,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2분기 간담회의 속기록은 업로드 하였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 드리겠다.

부총: 사과대 회장님께서도 의견을 전달해서 주시는 처지라 난처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에서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다는 정도 전해주시면 되겠다.

사과.정: 말씀해주신 바도 알고 있고, 1분기 간담회에 대한 속기록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되었고 2분기부터 공개하신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총학생회 집행부 내부의 논의 사항도 물론 중요하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나, 어쨌든 집행부 내 논의에 의해서 청각장애 학우 분들의 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집행부 내에서 재고를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2분기 간담회 속기록이 1분기와는 다르게 속기록이 작성이 되고 공개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분기 간담회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집행부 내에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단운위에서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이다.

총: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피드백이 들어와서 총학생회 내에서 집행부 논의를 했고 이것이 그 재고였다. 재고의 결과가 녹음본 파일을 게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총학생회 내에서 재재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내용 잘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세 네 차례 정도 논의는 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배리어프리 문제나 이런 것도 잘 인지하고 있으나 애초에 1분기 간담회는 속기록 예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피드백을 받아서 이후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만 지금 1분기 간담회 속기록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더 논의해서 바뀔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총: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추가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없으신 걸로 하고 중앙운영위원회 31차 회

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제가 회의 끝나고 단위요구안 엑셀파일과 정정된 한글파일 최종본, 두 번째로 새터 단가 투표, 이것은 내일 정오까지 실시된다. 세 번째로 불법 카메라 탐지기기 대여날짜 조사받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고생 많으셨다.

##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